

2023 홍콩 미니가이드북

# Hello Hong Kong

玩古齋寶裕

YUE PO CHAI ANTIQUE CO.

IMPORT & EXPORT, WHOLESALE & RETAIL

SALE  
出售  
業主



Hello  
Hong Kong

2023 홍콩 미니가이드북



# Hello Hong Kong

## CONTENTS

---

|        |   |
|--------|---|
| Intro  | <b>6 Hello Hong Kong</b><br><b>8 Map</b>  |
| Thema1 | <b>10 Skyline</b><br>12 서구풍 문화지구<br>14 스타의 거리<br>16 빅토리아 하버<br>17 빅토리아 피크                             |
| Thema2 | <b>18 Art &amp; Culture</b><br>20 M+ 뮤지엄<br>22 고궁박물관<br>24 K11 뮤지아<br>25 시취센터                         |
| Thema3 | <b>26 City Island</b><br>28 라마섬<br>30 청차우<br>31 핑차우   |
| Thema4 | <b>32 Gastronomy</b><br>34 덩섬<br>35 차찬텡<br>36 다이파이동<br>37 미쉐린가이드 레스토랑<br>38 완탕면, 곤지<br>39 에그타르트, 에그와플 |
| Thema5 | <b>40 Adventure</b><br>42 홍콩 디즈니랜드<br>43 오션파크 & 워터월드<br>44 빅버스, PMQ<br>45 옹핑 360, SKY100              |
| Outro  | <b>46 Information</b><br><b>48 QR code</b>  |



## Hello HongKong

발행일 2023년 3월27일  
 발행인 김윤호  
 발행처 홍콩관광청  
 제작 ㈜트래비  
 기획 강화승, 이성균  
 취재 강화승, 이성균  
 디자인 이금주  
 일러스트 정휘윤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 및 판권은 홍콩관광청에 있습니다. 내용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홍콩이 돌아왔습니다. 국경을 열고 마스크도 벗어 던졌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 숲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 사이를 비집는 푸릇함도 제법 무성해졌습니다. 느릿한 트램처럼 소호 어느 거리에서 커피 한 잔 여유를 부리기도, 골목을 누비는 재빠른 빨간 택시처럼 침사추이에서 유난을 떨기에도 좋을 때입니다. 홍콩의 스카이라인, 예술, 미식, 어드벤처, 홍콩의 모든 곳을 종횡무진 누비며 마주친 새로운 홍콩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Hello! Hong Kong!



Hello Hong Kong  
 캠페인 영상 보러 가기

# HONG KONG MAP



## 홍콩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하여

홍콩에는 대략 9,000개가 넘는 고층 건물이 있다. 그중 4,000개가 넘는 건물이 100m 이상의 고층빌딩이며 150m를 넘는 건물은 대략 500개를 훌쩍 넘긴다. 무작정 건물이 높은 것만도 아니다. 다양하고 조화롭다. 홍콩은 도시 전체가 건축박물관인 셈이다. '이오밍 페이, 노먼 포스터, 시저 펠리, 헤르조그 & 드 뫼롱' 등 현대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월드클래스 건축가의 작품이 지천에 널려있다. 2002년 4월에 홍콩에서 발효한 '스카이라인 규제 정책'은 도시가 '균형감'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면적으로 '규제 정책'이지만, 고층 건물을 신축 허가할 때 일률적으로 층수와 높이를 규제하지 않았다. 홍콩의 도심과 조화를 이룬다면 별다른 층수 제한을 걸지 않은 것이다. 덕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마천루가 홍콩에 가득 들어서게 됐다. 개성 넘치는 홍콩 건물의 외관에는 '풍수'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홍콩의 스카이라인은 물, 바람, 햇빛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지 않고 좋은 기를 살리려 애써 만든 결과물이다.



# SKYLINE



##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 예술의 심장, 서구룡 문화지구

홍콩을 여행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크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 그리고 신계. 이중 여행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찾는 곳이 홍콩섬과 구룡반도다. 홍콩섬에는 '센트럴, 스탠리' 등의 지역이 속하고 구룡반도에는 '침사추이, 몽콕' 등의 지역이 속한다. 구룡은 광둥어로 '9마리의 용(카오룽)'을 뜻한다. 여기서 용은 구룡반도에 솟아오른 9개의 산봉우리를 지칭한다. 구룡반도의 북쪽과 동쪽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다. 남쪽에는 구룡반도에서 가장 변화가인 침사추이가 자리한다. 구룡반도의 서쪽은 최근 문화와 예술이 가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서구룡 문화지구(WKCD)'가 위치한다. 참고로 서구룡 문화지구는 바다에 흠을 메워 만든 간척지다. 새로운 땅 위에도 꽃을 피움으로써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홍콩만의 문화적인 장소를 염원했다고 한다.

새로운 홍콩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단연 '예술'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 페어인 '아트바젤'이 매년 홍콩에서 열린다.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미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으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홍콩은 명실상부 글로벌 예술 시장의 허브이자 가장 트렌디한 아트 씬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구룡 문화지구가 자리한다.

📍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Tsim Sha Tsui, Hong Kong

☎ +852 2200 0217



**Travel Tip** 서구룡 문화지구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굵직한 대규모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M+ 뮤지엄, 고궁박물관, 시취센터 등이 있다. 건너편으로 홍콩섬이 보이는 산책로를 따라 '아트 파크(Art Park)'가 펼쳐져 있다. 1970년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던 구룡공원의 푸릇함은 회색빛 홍콩의 번잡함을 씻겨 준다. 조깅을 하고, 책을 읽고, 낚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낮잠을 청하다 이따금 강아지가 짹는 소리에 깨어나는 공간이다. 침사추이 쪽보다 훨씬 한적하게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 Victoria Harbour

### 홍콩의 발상지, 빅토리아 하버

빅토리아 하버는 홍콩의 발상지다. 구룡반도와 홍콩섬 사이에 위치한 항구다. 영국의 식민지 당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국의 무역항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빅토리아 하버를 드나드는 국제 선박이 수천 척에 달한다. 빅토리아 하버를 따라 거닐면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가장 전통적인 하버의 전망은 침사추이 워터프론트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A Symphony of Lights)'를 감상하며 산책 삼아 홍콩 문화 센터, 시계탑까지 함께 둘러보면 좋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 매일 저녁 20:00부터 시작한다.



빅토리아 하버를 더 현장감 있게 즐기고 싶다면 '스타페리'를 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페리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이다. 무려 1888년 12월부터 운항해 왔다. 스타페리를 이용할 경우 침사추이에서 센트럴 구간은 8분 정도, 침사추이에서 완차이 구간은 15분 정도 소요된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빅토리아 하버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고 싶다면 '스카이100 홍콩 전망대(Sky100 Hong Kong Observation Deck)'도 좋은 선택지다.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ICC(International Commerce Centre)의 100층에 자리하는 전망대다.

### 스타페리 센트럴-침사추이

| 구분         | W 매일 07:00~23:00 |           |        |        |
|------------|------------------|-----------|--------|--------|
|            | 월요일~금요일          | 주말, 공휴일   | 상행선    | 하행선    |
| 성인         | 5.0HKD           | 4.0HKD    | 6.5HKD | 5.6HKD |
| 어린이(3~12세) | 2.9HKD           | 2.8HKD    | 3.9HKD | 3.7HKD |
| 장애인        | 2.9HKD           | 2.8HKD    | 3.9HKD | 3.7HKD |
| 65세 이상     | 2.9HKD           | 2.8HKD    | 3.9HKD | 3.7HKD |
| 한달이용권      | 190HKD           | 4일 여행자 티켓 | 50HKD  |        |



## Avenue of the Stars

### 낭만의 산책, 스타의 거리

홍콩 침사추이 남쪽 산책로를 따라 할리우드의 '명예의 길(Walk of Fame)'을 본떠 만든 '스타의 거리'가 펼쳐진다. 홍콩 슈퍼스타의 핸드프린팅과 조각상을 통해 그 시절 홍콩 영화의 낭만을 되새길 수 있다. 스타의 거리는 총 457m 길이로 1982년에 조성되었다. 2019년 1월31일, 3년간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쳐 재개장했는데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설계한 '제임스 코너(James Corner)'가 참여해 재설계했다. 빅토리아 하버를 따라 광범위하게 조경을 재정비했고 그늘과 앉을 자리를 대폭 늘렸다. 특수 조명 시스템을 설치해 일몰 이후에도 보행자 데크 아래쪽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Travel Tip** 스타의 거리에서 꼭 봐야 할 3개의 동상. 이소룡 동상과 매염방 동상, 그리고 '맥달(McDull)' 동상이다. '맥달'은 홍콩에서 가장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한쪽 눈에 갈색 점박이 무늬가 있는 아기 돼지 캐릭터다.

**📍** Tsim Sha Tsui Promenade, Tsim Sha Tsui, Kowloon, Hong Kong

## Victoria Peak

### 홍콩 제일 전망대, 빅토리아 피크

빅토리아 피크에서는 홍콩섬과 빅토리아 하버, 그 너머 구룡반도까지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다. 피크 트램(The Peak Tram)을 타고 산 정상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6분. 1,278m 길이의 선로를 따라 단숨에 396m까지 오른다. 피크트램은 1888년 영국 총독과 피크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큰 파노라마 창을 장착한 6세대 피크트램이 운행 중이다. 오를 때는 오른쪽, 내려갈 때는 왼쪽에 앉아야 제대로 된 풍경을 촬영할 수 있다.



**Travel Tip** 빅토리아 피크 정상에 올랐다면 '루가드 로드(Lugard Road)' 피크 트레일을 따라 15분에서 20분 정도 트레킹에 나서보는 것도 추천한다. 트레킹 내내 오른쪽으로 홍콩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걸다 보면 2개의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한 곳에서는 중국은행 타워(Bank of China Tower)를 정면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구룡반도와 홍콩섬, 바다를 두루 조망할 수 있다

**📍** The Peak, Hong Kong  
**🚶** 피크 트램 스카이 패스(피크 트램 + 스카이 테라스) 성인 왕복 148HKD, 편도 112HKD, 피크 트램 성인 왕복 88HKD, 편도 62HKD(옥토퍼스 카드 결제 가능)

**☎** +852 2522 0922



# ART & CULTURE



## M+ Museum

### 삶과 밀접한 문화, 엠플러스 뮤지엄

서구룡 문화지구(WKCD)의 꽃은 엠플러스 뮤지엄(M+ Museum)이다. '아시아 최초의 동시대 시각 문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1년 11월 개관했다. 현대미술부터 근대미술, 시네마, 건축, 디자인까지 광범위한 예술을 다룬다. 전시공간만 무려 33곳, 영화관과 리서치 센터, 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에 관련한 모든 공간이 들어서 있다. 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디토리얼 콘텐츠 팀까지 약 250여 명의 다국적 큐레이터들이 뮤지엄을 이끈다. '엠플러스'라는 이름은 '미술관 이상의 미술관(More than Museum)'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 M+ Cultural District, 38 Museum Dr, West Kowloon, Hong Kong

**🕒** 매일 10:00~18:00(전시마다 세부정보 상이, 홈페이지 확인 필수)

**🎫** 성인 입장권 120HKD

**🌐** [www.mplus.org.hk](http://www.mplus.org.hk)

**Travel Tip**

엠플러스 뮤지엄의 설계는 스위스의 건축 회사 '헤르조그(Herzog) & 드 뫼롱(de Meuron)'이 참여했다. 거대하고 반듯한 외관이다. 앞쪽으로는 홍콩의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서구룡 아트공원이 펼쳐진다. 돛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 최적의 명소다. 근사한 일몰을 볼 수 있다. 해가 지고 나선 엠플러스 뮤지엄 자체가 작품이 된다. 건물 외벽 LED 파사드를 통해 비디오나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 Hong Kong Palace Museum

### 세계 문명의 화합, 홍콩 고궁박물관

침사추이와 센트럴을 오가는 페리를 타면 황금색 건축물이 눈에 띈다. 바로 홍콩의 신상 박물관 '홍콩 고궁박물관(HKPM)'이다. 서구형 문화지구에 자리한 박물관은 2022년 7월부터 대중에 문을 열었다. 중국의 예술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동시에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문명 간 대화를 진전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관 4달 만에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약 1만3,000㎡(약 3,933평) 규모의 박물관은 9개의 전시관을 비롯해 오디오룸, 기념품 상점, 식사 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의 경우, 박물관이 소장한 900개 이상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처음으로 전시하거나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 다수다.

📍 8 Museum Drive West Kowloon, Tsim Sha Tsui, Hong Kong

🕒 매일 10:00~18:00(금~토요일 20:00까지, 화요일 휴무)

🎫 성인 일반 입장권 50HKD, 특별전시회 포함 입장권 120HKD

🌐 [www.hkpm.org.hk](http://www.hkpm.org.hk)

**Travel Tip** 특별전시회는 일반 관람권 가격의 2배 이상이지만, 관람할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Radiance〉로, 박물관 자체 영구 소장품에서 큐레이팅한 첫 특별전시회다. 고대 중국과 인접 지역 간의 문화 교류에서 발생한 금의 진화를 들여다보며, 220개의 고대 금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대 중국의 문화 교류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11 MUSEA

### 쇼핑몰과 만난 크리에이티브, K11 뮤지엄

이스트 침사추이역 또는 스타의 거리를 걷다가 눈에 띄게 화려한 건축물이 눈에 띄었다면 그곳이 K11 뮤지엄이다. 이곳은 쇼핑뿐 아니라 홍콩의 예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약 250개의 상점과 약 70개의 레스토랑으로 구성돼 있다. 자연과 홍콩 도시 경관에서 영감을 얻은 실내 디자인은 근대 미술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쇼핑몰인지 갤러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창의적인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MTR 이스트 침사추이역에서 도보 1분, 완차이 페리 터미널에서 도보 5분 등이며, 쇼핑몰 바로 앞에서 홍콩의 대표 풍경인 빅토리아 하버를 즐길 수 있다.

**Travel Tip** 아시아 최대 MoMA(Museum of Modern Art) 디자인 스토어와 유명 홍차 브랜드 포트넘앤메이슨(Fortnum & Mason)의 영국 외 지역 첫 매장이 입점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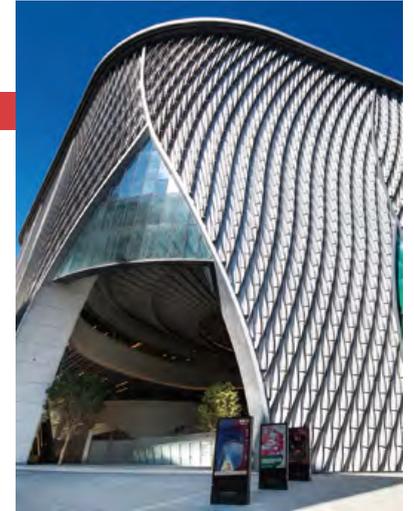
📍 18 Salisbury Rd, Tsim Sha Tsui, Hong Kong  
 🕒 매일 10:00~22:00 🌐 [www.k11musea.com](http://www.k11musea.com)



## Xiqu Centre

### 은은한 전통의 가치, 시취센터

2019년 1월20일 공식 개관한 시취센터는 월극을 포함한 다양한 시취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이다. 1,000석 규모의 중국식 오페라 하우스인 셈이다. 8층 높이의 건물에는 대극장, 티하우스 극장, 세미나홀, 8개의 스튜디오와 각종 식음료 판매, 레저 시설이 들어섰다. 시취센터는 서구 문화지구에 들어선 10개의 문화시설 중 첫 번째로 문을 연 곳이기도 하다. 참고로 '시취(戲曲, 희곡)'는 중국 전통극이다. 시취센터의 외관은 중국 전통 등(燈)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유려한 물결무늬 알루미늄 지붕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광택이 매력적이다.



**Travel Tip** 굳이 공연을 예약하지 않아도 찾은 가치가 있다. 시취센터의 안마당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이다. 설계 당시 '시취'에 대한 선입견을 낮추고자 극장과 도로 사이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지 않았다. 잠시 들러도 시락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쉬어가기 좋다.

📍 88 Austin Road West, Tsim Sha Tsui, Kowloon, Hong Kong 🕒 매일 10:00~22:30 ☎ +852 2200 0022  
 💰 가격은 각 공연마다 상이(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 [westkowloon.hk/en/xiqucentre](http://westkowloon.hk/en/xiqucentre)





# CITY

홍콩의 아름다움은 비단 도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섬들이 있으니까.

# ISLAND





## Lamma Island

### 페리와 함께 잠깐의 일탈, 라마섬

홍콩 중심가 어디든 인파로 북적인다. 복잡한 홍콩을 벗어나 평화로운 자연이 필요하면 페리를 타고 라마섬으로 떠나면 된다. 라마섬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과 이국적인 풍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여행자에게는 주윤발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섬마을 탐방, 바다 구경, 트레킹, 해산물 맛집 등을 즐길 수 있으며, 3~4시간이면 핵심 스팟을 두루두루 볼 수 있다. 물론 항구 근처에 숙소가 있어 하루 정도 머물며 섬을 누리는 방법도 있다.

여행은 홍콩섬 센트럴 페리터미널 4번 부두에서 출발한다. 페리를 타고 25~35분이면 라마섬의 용수완(Yung Shue Wan) 또는 속쿠완(Sok Kwu Wan) 부두에 도착한다. 라마섬 당일치기 코스 일정은 용수완 마을에서 시작해 홍싱에 해변(Hung Shing Yeh Beach), 라마섬 속쿠완 전망대(Lamma Island Sok Kwu Wan Lookout), 틴하우 사원(Tin Hau Temple)을 거쳐 속쿠완 부두에서 마치면 된다. 홍싱에 해변부터 속쿠완 전망대까지는 청명한 바다를 보며 걷는 트레킹 코스다. 경사가 완만하고, 길지 않은 거리라 누구나 걸을 수 있다. 여행의 시작점이자 핵심인 용수완 마을은 라마섬의 중심지로 여러 식당과 카페, 바, 상점 등이 몰려 있고, 곳곳에 주거지도 있다. 예전부터 외지인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라 홍콩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색채가 짙은 공간도 많다.



**Travel Tip** 추천 일정 | 홍콩섬 센트럴 페리 터미널 ▶ 용수완 마을 ▶ 홍싱에 해변 ▶ 속쿠완 전망대 ▶ 틴하우 사원 ▶ 레인보우 시푸드 레스토랑, 3~4시간 소요

#### 센트럴 ▶ 라마섬(용수완) 페리

06:30 이후 20분~1시간 간격.  
 마지막 배 00:30(2023년 3월 평일 기준)  
 ₩ 성인 18.6HKD(일요일 · 공휴일 25.9HKD)  
 hkkf.com.hk/en

#### 레인보우 시푸드 레스토랑

23-27 Lamma Island, Outlying,  
 Sok Kwu Wan First St, HongKong  
 ₩ 2인용 세트 메뉴 470HKD~  
 3인용 세트 메뉴 1,200HKD~  
 lammarainbow.com

# Cheung Chau

## 바다와 어우러진 알록달록한 섬, 청차우

모양 때문에 '아령섬'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청차우(長洲)는 본래 '길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홍콩섬에서 남서쪽으로 1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홍콩 여객선 터미널 (Central Ferry Pier) 5번 부두에서 고속 페리로 40분 만에 갈 수 있는 섬이다. 뽀뽀하게 정박한 어선과 해산물 식당으로 가득한 해안가, 활력 넘치는 현지인의 모습이 청차우 섬 여행의 매력이다. 명 왕조 시대(1368-1644)의 어업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까닭에 청차우에서는 고층 빌딩과 자동차를 보기 힘들다. 현지인들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섬 안을 이동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홍콩섬에서 유입된 젊은이들 덕분에 청차우에도 트렌디한 카페가 생겼다. 현지의 변화된 일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산힝 스트리트(San Hing Street)와 팍셰 스트리트(Pak She Street)로 향하면 된다. 안티크한 좁은 골목길에 잡화점, 정육점, 이발소, 과일가게 등 현지인의 생활 공간이 늘어서 있다. 예술가들이 만든 수공예품이나 액세서리도 구경할 수 있다. 통완비치도 매력 포인트다. 맑은 날에는 통완비치에서 홍콩섬 남부까지 조망할 수 있다. 해변에 있는 윈드서핑 센터에서 서핑이나 카누 장비를 빌릴 수도 있다.



### Travel Tip

팍타이 사원과 사원 밖 광장에서 열리는 빵 축제 '청차우 지아오 축제(Cheung Chau Jiao Festival, 매년 음력 4월 개최)'도 기억하면 좋다.

### 센트럴 ▶ 청차우 페리

🕒 05:10 이후 20~40분 간격, 마지막 배 23:45(2023년 3월 월~토요일 기준)  
 🎫 보통선 성인 14.2HKD(일요일·공휴일 21.2HKD)  
 쾌속선 성인 28.1HKD(일요일·공휴일 40.7HKD)  
 🌐 www.sunferry.com.hk/en

### 통완비치

📍 Tung Wan Beach, Cheung Chau, HongKong

### 팍타이 사원

📍 Pak Tai Temple, Pak She St, Cheung Chau, HongKong



### Travel Tip

펑차우 섬의 명물인 새우 멘보샤, 아이스크림 파인애플 빵, 찐 새우, 찰밥도 꼭 맛보길 추천한다.

### 센트럴 ▶ 펑차우 페리

🕒 07:00 이후 30~45분 간격, 마지막 배 00:30(2023년 3월 월~토요일 기준)  
 🎫 보통선 성인 16.6HKD(일요일·공휴일 23.9HKD)  
 쾌속선 성인 31HKD(일요일·공휴일 45.6HKD)  
 🌐 hkkf.com.hk/en

### 통모 사원

📍 15號 Chi Yan St, Peng Chau, HongKong  
 ☎ +852 2983 0725

### Leather Factory

📍 Wing on Street, Peng Chau, HongKong  
 🕒 10:00~20:00(월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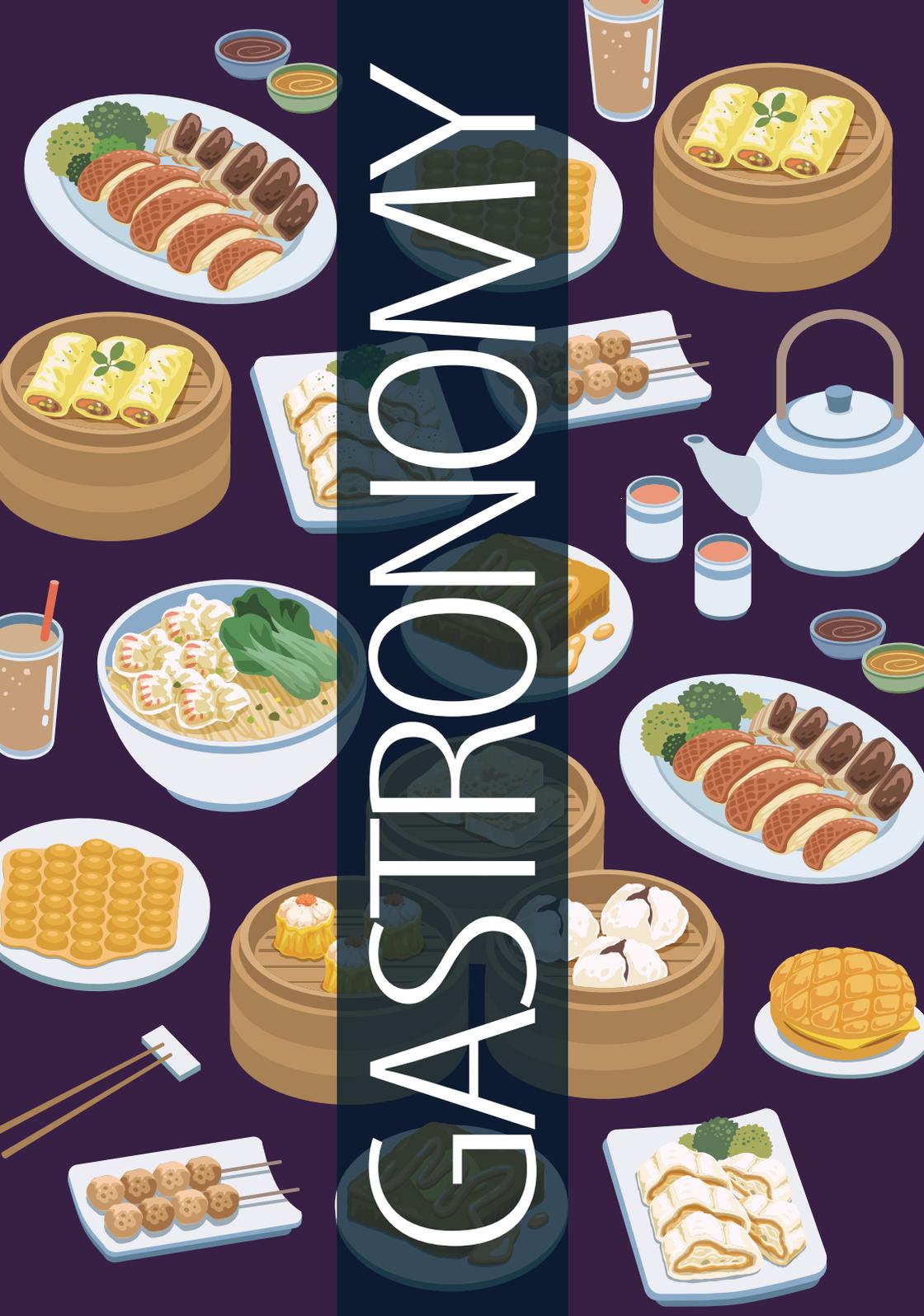
# Peng Chau

## 꼭꼭 숨겨놓은 동화처럼, 펑차우

평평한 섬이라는 뜻의 펑차우는 홍콩 란타우 섬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다. 홍콩 여객선 터미널 (Central Ferry Pier) 6번 부두에서 고속 페리로 35분이면 닿는다. 홍콩에서 '가장 덜 상업적인 외딴섬'으로 알려진 섬이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섬을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여행객들도 찾는 곳이 됐다. 섬 둘레가 5km 남짓이라 3시간이면 충분하다. 이곳에는 자동차가 없어 주요 이동 수단은 오로지 자전거나 도보다. 어업과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라 싱싱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펑차우에는 오래된 공장, 해변과 사원부터 그라비티 예술로 가득한 골목길까지, 크기는 작지만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펑차우 섬이 품은 매력을 알려면 최소 반나절은 필요하다.

펑차우의 주요 여행지는 펑차우 섬 중심부를 세로로 나누는 윈온 스트리트(Wing On Street)와 윈힝 스트리트(Wing Hing Street), 예술 공간이자 3등급 역사 건물인 가죽 공장(Leather Factory), 펑차우의 일상을 볼 수 있는 통완비치(Tung Wan Beach), 섬에서 가장 큰 사원인 통모 사원(Lung Mo Temple) 등이 있다.

# GASTR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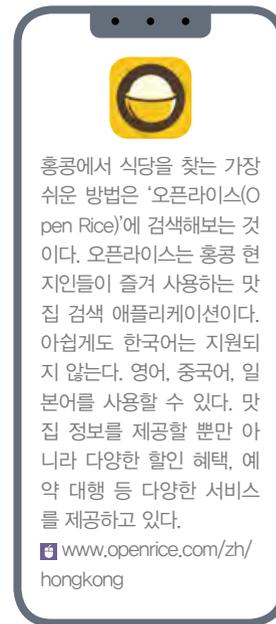
## 미식의 펠팅팟

‘홍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2가지다. 수많은 빌딩이 만들어 낸 도심 풍경과 다채로운 음식이다. 홍콩의 식문화는 유독 매력적이고 복합적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로컬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음식의 시작은 광둥성에서 찾을 수 있다. 홍콩과 광둥성은 지리적으로 접해 있는 만큼 예전부터 교류가 활발했고, 홍콩에 거주하는 광둥인도 많았다. 그런데 왜 유독 음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광둥성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 여러 글을 보며 광둥성 사람들을 파악해 본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꽤 각별한 존재로 여긴다. 이러한 기질 덕분에 광둥요리는 중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러한 DNA가 자연스럽게 홍콩에 스며들었고, 홍콩도 식문화가 매력적인 지역이 됐다. 참고로 홍콩의 대표 음식인 딤섬도 광둥성의 영향인데, 광둥성의 암차 문화가 1900년대 초 홍콩으로 유입됐다. 당시 성완과 센트럴 지역에서 딤섬과 차를 판매하는 곳이 번성했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다양성의 경우, 영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홍콩은 19세기부터 영국의 아시아 무역 거점이 되면서 국제 무역이 발달한 데다가 아시아 금융허브의 역할도 했다. 덕분에 외국의 각종 향신료와 식재료도 쉽게 홍콩에 발을 들였다.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조화가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단순히 수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홍콩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딤섬만 봐도 서양식 재료와 베이킹 기법을 도입해 에그 타르트, 망고 푸딩 등이 탄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후 홍콩의 식문화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성도 확보하게 됐다.

홍콩 미식의 다채로움은 세계적인 미식 평가서 ‘미쉐린 가이드’에도 엿볼 수 있다. 칸토니즈와 상하이니스, 딤섬, 누들 등 홍콩과 중국 음식을 제외하더라도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틴 아메리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타이완, 태국, 베트남 스타일의 요리가 빙구르망 또는 스타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자국만큼 타국의 음식도 수준급이라는 방증이며, 홍콩에서는 어느 음식을 먹어도 기본 이상은 할 거라는 믿음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야말로 미식의 펠팅팟으로 성장한 셈이다. 그저 여행자들은 홍콩의 음식을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즐기지만 하면 된다.



홍콩에서 식당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픈라이스(Open Rice)’에 검색해보는 것이다. 오픈라이스는 홍콩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맛집 검색 애플리케이션이다.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는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맛집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 혜택, 예약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openrice.com/zh/hongkong



## 홍콩의 시그니처, 딤섬

딤섬은 홍콩의 시그니처 먹거리다. 홍콩의 딤섬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 중국 광둥성의 영향으로 성완, 센트럴, 사이잉푼 지역에서 차와 다양한 딤섬을 제공하는 찻집이 생겼다. 실제로 1933년에 개업한 룽유 티하우스(Luk Yu Tea House)처럼 오래된 가게도 만날 수 있다. 딤섬은 대나무 찜기에 찜 만두뿐만 아니라 미트볼, 찰밥, 닭발, 에그타르트 등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현지인들은 점심 식사로 딤섬과 차를 간단하게 즐기는 암차 문화를 선호한다. 한 번은 꼭 맛봐야 할 딤섬은 쇼마이(Siu mai), 하가우(Har gow, Shrimp dumplings), 바비큐 포크 번(Char siu bao), 창펀(Cheung fun, Rice Noodle Rolls), 로 마이 가이(Lo Mai Gai, Sticky Rice in Lotus Leaf) 등이다. 식당마다 대표 딤섬이 다르니 추천 표시가 있는 딤섬은 주문해서 맛보는 걸 추천한다.

### Travel Tip

딤섬은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는 음식이다. 길거리부터 5성급 럭셔리 호텔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딤섬을 해석하고,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끼,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두루두루 딤섬을 즐겨보자.

### 딤섬 추천 레스토랑 & 지역

- Prestige Dim Sum Restaurant 센트럴
- Yum Cha 센트럴
- Luk Yu Tea House 성완
- Dim Sum Square 성완
- Lin Heung Kui 성완
- Man Mo Dim Sum 성완
- Tim Ho Wan 삼수이포
- Seventh Son 완차이
- Dim Dim Sum 몽콕
- Dim Sum Library 애드미럴티

딤섬 1접시 20~40HKD

## 감성 충만한 홍콩 분식집, 차찬텡

‘차찬텡(Cha Chan Teng, 茶餐廳)’은 딤섬과 함께 대표적인 홍콩의 식문화다. 홍콩 스타일의 카페 또는 차와 함께 즐기는 홍콩식 분식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간단한 홍콩식 덮밥과 면 요리, 홍콩식으로 해석한 서양 요리를 판매한다. 아침 일찍 영업을 시작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좋다. 차찬텡을 잘 활용하면 홍콩의 식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가성비 높은 여행도 가능하다. 아침 식사에 경우 20~40HKD(약 6,700원) 수준이다.

차찬텡에서 판매하는 메뉴는 상당히 많은데, 밀크티는 필수로 주문하는 게 좋다. 아침에는 프렌치토스트, 버터&연유 바른 토스트, 토스트+스크램블+햄, 샌드위치, 파인애플 빵 등의 빵이나 닭고기, 차슈, 계란 프라이 등이 올라간 밥 메뉴를 추천한다. 점심에는 양념 돼지고기가 올라간 홍콩식 비빔면 또는 토마토 라면, 햄버거, 고기덮밥, 오믈렛, 마카로니 수프 등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걸 추천한다. 참, 차찬텡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합석은 자연스러운 일이란 것도 알아둬야 한다.



### Travel Tip

수많은 차찬텡 중에서도 주윤발의 단골집이자 실크 스타킹 같은 천에 우러난 밀크티로 유명한 란푹유엔(센트럴 소호·침사추이), 1970년 조던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어리 컴퍼니 등이 특히 유명하다.

### 차찬텡 추천 레스토랑 & 지역

- Lan Fong Yuen 센트럴
- Australia Dairy Company 조던
- Ma Sa 성완
- Waso Cafe 침사추이
- Mido Cafe 아우마데이
- Sun Hang Yuen 삼수이포
- Kam Fung 완차이
- Po Woo 코즈웨이 베이
- Shun Hing 코즈웨이 베이
- Congleakafe 사이완

예산 30~100HKD

(약 5,000~1만6,660원, 1인 기준)



### 지켜나가야 할 식문화 유산, 다이파이동

홍콩에서 유래된 다이파이동(Dai pai dong)은 포장마차 형태의 야외 식당이다. 이제는 야외 식당의 대명사로 굳어져 홍콩 외에서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어 실정이다. 홍콩 정부가 공공도로 환경과 식품 위생을 이유로 다이파이동의 운영과 라이선스를 제한한 탓에 홍콩에 남은 다이파이동은 30개도 채 되지 않는다. 즉, 다이파이동을 찾아가는 것 자체로 홍콩의 식문화 유산을 경험한 셈이다. 맛과 풍족한 양은 덤이다.

활용법은 다양한데, 두 가지를 추천한다. 점심 혹은 아점에는 간단하게 토마토라면 혹은 소시지를 올린 라면, 연유 발라진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등과 적당히 달콤하고, 시원한 홍차를 곁들여 가성비 있는 식사를 하면 만족도가 꽤 높을 것이다. 혹은 불맛 강하게 나는 볶음면도 좋다. 점심시간에는 현지인들도 자리를 많이 차지 않고 있어 홍콩의 일상에 녹아든 인상을 받는다.



#### Travel Tip

밤늦은 시간에는 삼수이포 지역으로 향하자. 이 지역 다이파이동에 서 술 한잔 마시는 게 홍콩의 낭만이다. 왠지 낯익은 사람들 속에 뒤섞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침사추이나 센트럴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홍콩의 소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정까지 하는 곳도 많으니 홍콩 여행의 마지막 밤을 이곳에서 불태우는 건 어떨까.

#### 다이파이동 추천 레스토랑 & 지역

- Sing Heung Yuen 센트럴
- Sing Kee 센트럴
- Leaf Dessert 센트럴
- Oi Man Sang 삼수이포
- Keung Kee 삼수이포
- So Kee(蘇記) 삼수이포
- Cheung Fat Noodles 썩깁메이
- Glorious Cuisine 썩깁메이
- Bing Kee Cha Dong 타이항
- Chan Kun Kee 시먼

## 여행의 마지막 밤을 위해서

###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홍콩은 근사한 공간에서 즐기는 미식 문화도 고도로 발달해 있다.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홍콩 식당은(1~3스타, 뷔구르망, 그린 스타) 총 217개다. 홍콩의 미식은 국제적 다양성을 기초로 한다. 정통 칸토니즈(Cantonese)는 물론 한·중·일식, 동남아, 유럽, 북남미 등을 아우른다. 미쉐린 가이드도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 다채로운 레스토랑을 선정했다. 또 길거리 음식, 국수, 칸토니즈 바비큐 등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가게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원스타에 등재된 약록(Yat Lok)은 칸토니즈 바비큐 전문점으로 2만원 이하로 식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타 레스토랑이다.



#### 미쉐린 가이드 추천 레스토랑 & 지역

- Lung King Heen ★★★ Cantonese
- 8 1/2 Otto e Mezzo Bombana ★★★ Italian
- Forum ★★★ Cantonese
- Sushi Shikon ★★★ Sushi
- Tin Lung Heen ★★ Cantonese
- L'Envol ★★ French Contemporary
- Bo Innovation ★★ Innovative
- Octavius ★★ Italian
- Run ★ Cantonese
- Man Wah ★ Cantonese
- Hansik Goo ★ Korean
- Vea ★ Innovative
- Tsim Chai Kee Bib Gourmand Noodles
- Kai Kai Bib Gourmand Street Food
- Kau Kee Bib Gourmand Noodles

#### Travel Tip

여행 마지막 날 저녁은 럭셔리 호텔의 스타 레스토랑을 활용하자. 포시즌스 홍콩은 3스타만 2곳(Caprice · Lung King Heen)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다린 오리엔탈 그룹도 홍콩에서 1곳의 3스타 레스토랑(Sushi Shikon, 더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2곳의 1스타 레스토랑(Man Wah · Mandarin Grill+Bar, 만다린 오리엔탈 홍콩)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리츠칼튼 홍콩(Tin Lung Heen\*\*, Tosca di Angelo\*), 세인트 레지스 홍콩(L'Envol\*\*, Rùn\*) 등도 스타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 700~2,000HKD(약 11만6,700원~33만 3,500원, 스타 레스토랑 1인 기준)



### ‘꼬들꼬들’ 면의 유혹 완탕면

홍콩에서 첫 끼니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홍콩 대표 면 요리 ‘완탕면’이다. 꼬들꼬들한 에그누들과 말린 가지미, 닭·돼지뼈 등으로 감칠맛을 극대화한 육수, 부들부들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완탕이 어울린 근사한 한 그릇이다. 식사로도, 해장으로든 어느 때 먹어도 만족감이 높다.

**Travel Tip**

완탕면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시기에 붙여졌다고 하니 최소 1,100년 전부터 즐겼던 음식을 우리도 맛보고 싶은 셈이다.

**완탕면 추천 레스토랑 & 지역**

- Tsim Chai Kee Noodle 센트럴
  - Mak's Noodle 센트럴
  - Tasty Congee & Noodle Wantun Shop 센트럴
  - Good Hope Noodle 몽콕
  - Kai Kee Noodles 침사추이
- 예산 38~67HKD (약 6,330~1만1,160원, 1인 기준)

### 편안한 아침을 위한 한 그릇 콘지

콘지는 우리의 미음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맛은 전혀 다르다. 쌀과 곡류를 육수에 끓여 좀 더 진하고, 뚜렷한 맛을 내고 있다. 몽근하게 끓여내 쌀의 식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수프에 가까운 형태다. 아침에 먹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이다.

**Travel Tip**

갖가지 토핑을 올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 추천 토핑으로 얇게 썬 소고기 & 미트볼, 닭고기, 돼지 내장 등이 있다.

**콘지 추천 레스토랑 & 지역**

- Sang Kee Congee Shop 성완
  - Law Fu Kee 센트럴
  - Trusty Congee King 완차이
  - Mui Kee Congee 몽콕
  - Congee and Noodle Shop 퀴리베이
- 예산 37~65HKD (약 6,160~1만800원, 1인 기준)



### 계란 없이 못 살아 에그타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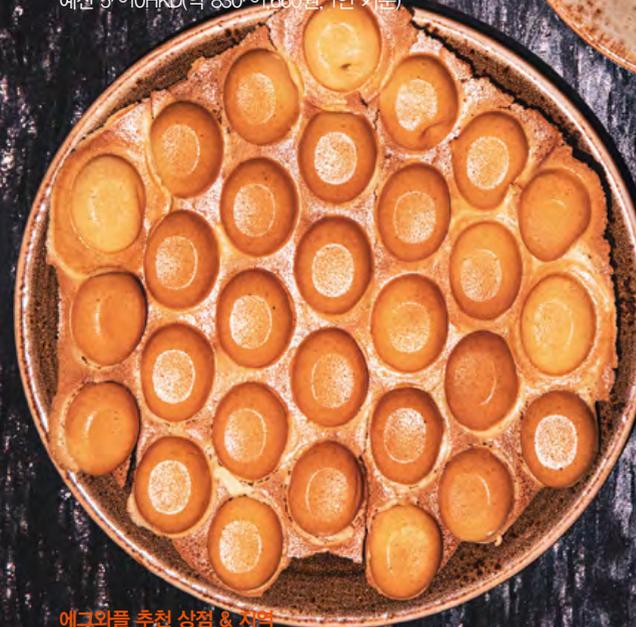
에그타르트는 홍콩의 시그니처 디저트다. 둥근 페이스트리 가운데에 달걀 커스터드를 채운 타르트다. 바삭하고, 버터 향이 강한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와 달리 홍콩은 좀 더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커스터드 또한 지나치게 달지 않으며, 달걀의 고소한 맛이 두드러지는 스타일이다. 홍콩차와 우유 등과 특히 잘 어울린다. 홍콩 빵집, 디저트 전문점, 차찬팅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가격은 5~10HKD(약 1,680원) 수준이다.

**Travel Tip**

홍콩에서 포르투갈과 닮은 마카오 에그타르트를 구매해 두 스타일을 비교하는 재미도 놓치지 말자.

**에그타르트 추천 상점 & 지역**

- Tai Cheong Bakery 센트럴
  - Bakehouse 센트럴
  - Taipan Bread & Cakes 코즈웨이 베이
  - Cheung Hing Coffee Shop 해피밸리
  - Kam Wah Cafe & Cake Shop 몽콕
- 예산 5~10HKD(약 830~1,660원, 1인 기준)



### 국민간식 에그와플

홍콩의 국민 길거리 간식 ‘에그와플’. 에그 퍼프, 까이펀자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막 구워낸 따끈따끈한 에그와플은 계란의 고소한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간식이다. 부들부들하면서도 쫄쫄한 식감이 주는 재미도 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지만, 특히 학교 시간에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많다. 가격도 오리지널 에그와플의 경우 15~20HKD(약 3,360원)이다.

**Travel Tip**

다양한 변주도 가능하다. 오리지널은 물론 치즈, 염장 계란 노른자, 양념 돼지고기 등 다양한 맛을 첨가한 세이버리(Savoury), 초콜릿, 바나나, 얼그레이 등을 첨가해 달콤하고 향을 부각한 스위트(Sweet) 버전도 있다.

**에그와플 추천 상점 & 지역**

- Mommy Pancake 조던, 성완
  - Fung Kee Egg Waffle 침사추이
  - Eggs Bakery 노스포인트
  - Lee Keung Kee North Point 노스포인트
  - Master Low-key Food Shop 사우케이완
- 예산 15~45(약 2,500~7,505원, 1인 기준)



매일 홍콩이 즐거운 이유.  
지금 당신이 주목해야 할 홍콩의 어트랙션.

# ADVENTURE





## Disneyland

### 동심의 세계로,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는 2005년, 세계에서 11번째로 개장한 디즈니랜드이다. 테마파크로는 미국 거리를 재현한 '메인스트리트', 정글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랜드', 다양한 공주를 콘셉트로 꾸민 '판타지 랜드', 공상과학 우주를 체험하는 '투모로우 랜드', 장난감을 놀이기구로 즐기는 '토이스토리 랜드', 미스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리즐리 컬치'와 '미스틱 포인트' 등 총 7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전 세계 디즈니랜드 최초로 마블 스튜디오와 함께 테마관을 구성한 '아이언맨 익스피어리언스(Iron Man Experience)'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 Travel Tip

MTR 서니베이(Sunny Bay)역에서 하차 후 디즈니랜드 리조트 라인(Disneyland Resort Line)으로 환승 후 한 정거장이면 도착.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토이스토리 랜드'나 '그리즐리 컬치'부터 즐기는 편이 효율적인 동선.

📍 Hong Kong Disneyland, Penny Bay, Lantau Island, Hong Kong

🕒 매일 10:30~19:30(화요일, 목요일은 휴무) 23년 4월 기준

☎ +852 3550 3388

#### 디즈니랜드 필수 어트랙션 4

- 1 캐슬 오브 매지컬 드림즈 (Castle of Magical Dreams)
- 2 투모로우 랜드 (Tomorrow Land)
- 3 토이스토리 랜드 (Toy Story Land)
- 4 팔로우 유어 드림즈 (Follow Your Dreams)



## Ocean Park & Water World

### 홍콩 터줏대감, 오션파크 & 워터월드



명실상부 홍콩 최고의 해양 테마파크이자 놀이공원. 1977년 1월10일날 개장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 왔다. 오션파크의 총면적은 무려 87만 평방미터. 하나하나 즐기려면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야 한다. 오션파크는 크게 '더 워터

프론트(The Waterfront)'와 '더 서밋(The Summit)', 2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이 두 곳을 '케이블카'가 연결한다. 거리는 1.5km 정도,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2021년 9월에는 오션파크 옆쪽에 '워터월드'가 추가로 개장했다. 약 6만5,000여 평방미터 규모에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워터월드는 27개의 실내외 놀이기구로 짜릿한 물놀이 경험을 선사한다.

#### Travel Tip

MTR 애드미럴티(Admiralty)역에서 사우스 아일랜드(South Island) 라인으로 갈아타면 오션파크역까지 6분이 소요. 입장과 동시에 케이블카를 타고 서밋 구역을 즐긴 후 워터프론트 구역을 둘러보는 순서를 추천.

📍 No.180 Wong Chuk Hang Road, Aberdeen, Hong Kong

🕒 매일 10:00~18:00(주말 19:00 마감) 23년 4월 기준

☎ +852 3923 2323



#### 오션파크 & 워터월드 필수 어트랙션 4

- 1 케이블카(Cable Car)
- 2 자이언트 판다 어드벤처(Giant Panda Adventure)
- 3 그랜드 아쿠아리움(Grand Aquarium)
- 4 헤어 레이저(Hair Raiser)





ADVENTURE

**빅버스 센트럴 인포메이션 센터**

📍 Shop 12, 1층, Central Ferry Pier 7, Central, Hong Kong

🕒 매일 09:00~18:00

**빅버스 티켓팅 카운터**

📍 피크트램 가든로드 정거장(Peak Tram Lower Terminus)

🕒 매일 10:00~17:00

**시티투어버스 빅버스 Big Bus**

빅버스는 홍콩을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다. 주간에는 홍콩섬과 스탠리를 둘러볼 수 있는 노선을 각각 운영한다. 야간에는 구룡반도를 둘러보는 나이트투어 노선을 운영 중이다. 홍콩의 모든 주요 명소에 빅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홍콩 곳곳의 매력을 살펴볼 수 있다. 햇빛이 강한 낮에는 1층 실내에서, 비교적 선선한 저녁에는 실외인 2층에서 투어를 즐기길 추천한다. 한국어를 포함한 8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개별 이어폰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빅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버스의 현 위치, 정류장 찾기, 도시 내 정확한 내 위치 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월 초부터는 매일 운행 중이다.



**옹핑 360 & 옹핑 빌리지**

옹핑 360은 5.7km의 긴 거리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로 중국 전통 테마 마을인 옹핑(Ngong Ping)과 통청(Tung Chung)을 연결한다. 홍콩 시내에서 볼 수 없는 한가로운 어촌을 여행할 수 있다. 최근 옹핑 360은 '크리스탈 플러스 캐빈'을 새롭게 추가했다. 크리스탈 플러스 캐빈은 사면이 투명한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크리스탈 캐빈보다 유리 부분을 30% 더 확장해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옹핑 360은 세계 최장 해상교인 강주아오 대교와 근접한다.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 마카오, 중국 주하이를 연결하는 해상 대교다. 옹핑 360과 연결되는 통청역에서는 강주아오 대교로 이어지는 B6번 버스를 탑승할 수 있고, 버스 이용 시 중국 국경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옹핑 360의 종착역은 옹핑 빌리지다. 옹핑 빌리지는 '포린사원(Po Lin Monastery)'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테마 빌리지다.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VR 체험관, 전시관 등 다양한 체험형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21년 설립된 포린사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좌불상이 자리한다.

📍 11 Tat Tung Road, Tung Chung, Lantau Island, Hong Kong  
 🕒 매일 10:00~18:00 🎫 235-HKD  
 ☎️ +852 3666 0606

**Hello Hong Kong Attractions 4**

**가장 트렌디한 기숙사, 피엠큐 PMQ**

'PMQ'는 'Police Married Quarters'의 약자다. 1951년까지 기혼 경찰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이 2000년까지 비어 있다가, 리노베이션을 거쳐 2010년 디자인 스포츠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 기숙사 방방마다 작은 디자인이 숨겨져 있어 신기하다. 모든 업사이클링의 사례가 그렇듯, PMQ는 고유하고 독특하다. 할리우드(Hollywood)와 스톤튼(Stanton),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물은 서로 연결돼 있다.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편인 데다 층층마다 모양이 같아 길을 잃기 십상이니, 짙게 둔 아이템이 있다면 주저 말고 그 자리에서 사는 편이 현명하다.

📍 No.35 Aberdeen Street, Central, Hong Kong 🕒 매일 07:00~23:00 ☎️ +852 2870 2335 🌐 www.pmq.org.hk



**홍콩 최고층 전망대 스카이100**



스카이100(Sky100)은 홍콩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해발 393m)다. 어떤 방해물 없이 홍콩 스카이라인과 빅토리아 항구의 전경을 360도로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홍콩 최고층 빌딩인 ICC(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100층에 자리

하는데, 정상에 오르기까지 엘리베이터로 단 6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풍경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체험과 미식, 쇼핑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스카이100은 현재 '더 리츠칼튼 홍콩'에서 운영하는 F&B 아웃렛을 보유한 세계 최초의 전망대이기도 하다. 저녁에는 빅토리아 항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라이트 쇼 '러브 이즈 인 더 스카이(Love is in the Sky)'가 인기를 끈다. 창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홍콩스러운 비주얼 아트쇼가 펼쳐진다.

📍 1 Austin Road West, Kowloon, 100/F,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Hong Kong  
 🕒 매일 10:00~20:30(최종 입장 20:00)  
 🎫 성인(12~64세) 198-HKD, 어린이(3~11세) 128-HKD, 65세 이상) 128-HKD  
 ☎️ +852 2613 3888

**Love is in the Sky Light Show**

🕒 매일 19:00부터 (총 25분 소요, 30분마다 진행)





### IMMIGRATION

홍콩의 방문 비자(Visitor Visa)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홍콩 체류 예정 기간이 지난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TIME GAP

홍콩이 1시간 느리다. 홍콩이 오전 6시일 때, 서울은 오전 7시.

### WEATHER

아열대성 기후인 홍콩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즌은 12월 말부터 2월. 이 시즌을 굳이 따지자면 겨울 시즌이다. 우리나라 겨울처럼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가을 날씨 차림으로 여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5~6월, 9~10월은 번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진다. 늦봄~한여름에 해당하는 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대망의 7~8월. 이 시즌에는 홍콩에 모든 덤섬이 오버쿡 되어 나온다는 농담도 있다. 그만큼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쇼핑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 안은 겨울만큼 춥다. 여름이라도 가방에 얇은 외투는 하나씩 꼭 챙겨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 CURRENCY

홍콩은 홍콩달러(HKD)를 사용한다. 2023년 4월 기준 10달러당 1,700원.

### LANGUAGE

홍콩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광둥어다. 큰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별지장 없다. 다만 현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광둥어로 '감사합니다'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다. 광둥어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서비스나 도움을 남에게 받았을 때,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받았거나 칭찬을 들었을 때. 먼저 도움에 대한 감사는 '음 꼬이(唔該)'라고 발음한다. 길을 안내받거나, 음식이 나왔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줬을 때 알맞은 표현이다. 만약 지나가다 누군가에게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라고 칭찬을 들었을 땐 표현이 달라진다. '뚜어지에(多謝)'라고 발음하면 된다. 대체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거나 돈이 사용됐을 때 알맞다.

### TRANSPORTATION



MTR, 트램, 버스, 페리, 택시 등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홍콩에서는 '옥토퍼스 카드'가 필수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 동전이 넘게 되는데 홍콩 동전이 상당히 무겁다. 옥토퍼스 카드는 우리나라 '티머니 카드'를 생각하면 된다. MTR, 버스, 페리, 편의점에서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고 택시는 일부에서 사용 가능하다. 택시 기본료는 27HKD(한화 약 4,500원). 공항에서 홍콩역이나 센트럴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면 5만5,000원~6만5,000원 정도가 나온다.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택시로 오갈 때는 톨게이트 비용으로 85HKD(한화 약 1만4,000원)가 청구된다. 지역별로(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 등) 택시의 색이 다르며 지역 이동 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추가로 홍콩 택시 뒤편에는 '4' 또는 '5'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최대 탑승객 수를 뜻한다. 수하물의 경우 개인이 소지 가능한 가벼운 짐을 제외한 큰 짐에 대해서는 개당 6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수하물이 많거나 큰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는 점보 택시도 좋은 선택지다. 옥토퍼스 카드는 애플페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홍콩관광청



 [www.discoverhongkong.com/kr](http://www.discoverhongkong.com/kr)  
 [@discoverhongkong](https://www.instagram.com/discoverhongkong)  
 [facebook.com/discoverhongkong.kr](https://www.facebook.com/discoverhongkong.kr)  
 [blog.naver.com/hktb1](https://blog.naver.com/hktb1)  
 [twitter.com/discoverhk](https://twitter.com/discoverhk)

24시간 긴급 콜센터  999 / 112  
홍콩 기상청  [hko.gov.hk](http://hko.gov.hk)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852 2529 4141  
긴급전화  +852 9731 0092

# INFORMATION

## 홍콩관광청 관광 안내 서비스

### ■ 홍콩 국제공항 관광안내센터

Buffer Halls A and B, Arrivals Level, Terminal 1,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Lantau Island

■ 매일 08:00~21:00

### ■ 구룡 관광안내센터

Star Ferry Concourse, Tsim Sha Tsui, Kowloon

■ 매일 08:00~20:00

### ■ 홍콩 서구룡 관광안내 센터

B2 Level, Arrival Concourse, Hong Kong West Kowloon Station

■ 매일 09:00~18:00

### ■ 강주아오 대교 홍콩 항구 관광안내센터

G/F, Passenger Clearance Building, Hong Kong Port

### ■ 흥유엔와이 방문자 센터

Outside Arrival Hall on 2/F, Passenger Terminal Building, Heung Yuen Wai Boundary Control Point

### ■ 홍콩관광청 핫라인

☎ +852 2508 1234 ■ 매일 09:00~18:00 📧 info@discoverhongkong.com

온라인 채팅(라인, 왓츠앱)을 통한 상담 가능(한국어 지원)



홍콩관광청 왓츠앱 QR



홍콩관광청 라인 QR

Hello  
Hong Kong

Hello  
Hong Kong